

## ■ 2024년 예술극장 [아르코 댄스 & 커넥션] 오픈콜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 2024년 예술극장 [아르코 댄스&커넥션] 오픈콜
- 회의일시 : (1차 서류) 2024년 6월 17일(월) 14:00 ~ 18:00  
(2차 인터뷰) 2024년 6월 24일(월) 14:00 ~ 18:00
- 회의장소 : (1차)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2차)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량원, 김예림, 김호연(무용가), 노정식, 심정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공공 예술극장의 다양성 무용기획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아르코 댄스 & 커넥션’을 신설하였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을 테스트 베드로 하여 다양한 무용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진/중견 무용 창작자 및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에게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기획제작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연극 분야에서 신춘 문예와 연계하여 ‘봄 작가 겨울 무대’를 매해 개최해 온 것에 비해, 무용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공공 예술극장에서 관련 기획이 전무(全無)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대두되었으나, 이번 ‘아르코 댄스 & 커넥션’을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르코 댄스 & 커넥션’은 첫 회를 맞이하여 총 37건이 공모되었으며, 무용계 내외의 전문 심의위원 5인이 6월 17일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2차 심층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하였다. 정량적인 심의 기준으로 신청자의 역량, 작품의 예술성 및 발전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합리성에 중심을 두고 본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정성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무용창작의 다양한 발전성 여부, 실험적인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형성에서 탈피한 크리에이티브 작업, 무용과 타 장르와의 다양한 예술적 결합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 취지에 맞춰 해당 사업을 통해 창작적인 발전과 변화 등을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창작 활동에 어떤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지, 타 중점 지원 사업의 선정작과 어떤 차별성과 변별력을 지녔는지, 계획의 구체성과 2년 차의 발전 가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이나 타 분야와의 협업 혹은 실험적 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분하였다.

예상을 웃도는 지원 건 중에서 무용계에서 유의미한 창작을 펼쳐온 이들이 적지 않은바 심의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정된 선정 건수로 인해 아쉽게

미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재도전하기를 바라는  
바다. 선정된 5건은 10월31일-11월7일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그동안의 작업  
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년도 공연의 경우 완성작이 아닌 창작 계획의 구체화 과정  
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선정된 5건 중 최종 2건을 추려서 차년도에  
완성작의 단독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일동